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크리스마스의 등장인물들” (Four Characters of Christmas)

■ 마태복음 2:1-12

오늘은 기쁘고도 기쁜 성탄절, 크리스마스날이고 또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 중에는 4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부류씩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말씀의 조명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헤롯 왕과 같은 부류입니다(마 2:2~3).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두배 사람, 즉 애굽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은 두 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왕 중의 왕이고, 만유의 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2. 알한 백성들과 같은 부류입니다(마 2:2~3).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는 뜻의 헬라어 “타랏소”는 “분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이 내게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상연화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을 만듭니다. 이 날은 서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핫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 떠들썩하고, 분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오늘 지나면 그 소리가 다시 조용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한 번 떠들썩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입니다(마 2:4).

헤롯 왕이 불쾌해 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2: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마친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을 짓습니다. 여전히 세사적인 염려와 걱정애 휩싸여 삽니다. 세사적인 욕심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4. 동방박사와 같은 부류입니다(마 2:1).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참 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하늘을 보며 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800km나 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멀고 먼 고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역자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마2: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려야 하는 너무나 마땅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감출 길 없는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보배함을 열어 드러내, 겸손히 앞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맺는 말

오늘은 크리스마스날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진정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III,IV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 10시 30분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예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일집회		오전 8시	606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일집회		오전 11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삼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 목사 임규현 김희정 이종진 노철호

교육전도사 아신우 바다원 최인애 허승일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현나, 이사라, 권요셉·조애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희(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
(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광정(러시아), 김인서·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대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새가 찬 시간

삶의 페이지를 또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란 신비에 다시 한 번 빠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가운데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고용할 수도, 구매할 수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철저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알루미늄은 구리로, 육체노동은 지식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은 공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고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깍시다. 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역사는 이뤄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 안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when the time has fully come) 우리 주님이 오셨으며, 바로 그 때가 찬 그 시간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201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때가 찬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이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교회에서 2012년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 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정수길 목사	정수길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한상은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박정선 장로
일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시 84: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93(새해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50(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14:22-2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Sermon "성찬의 의미"..... 박노철 목사 (Meaning of Holy Communion)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 552(358)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오후 5시 · 인도:박노철 목사, 설교: 홍남기전교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함 께
기 도	김용환 집사
찬 송	다 함 께
성 경	설 교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윤갑숙 권사, II부: 김예한 권사
성 경	마 3: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설 교 자

특별새벽기도회

-청지기 수련회-

오전 5시, 본당

반주: 오세광 목사

설 교박노철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 청지기 수련회 기간으로 개인기도회로 모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십자가 군병	Charles Gounod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Handel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축복	H. R. Evans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나에게 돌아오라	Flecxington	유태왕	김진형	김양언	
영어예배	예루살렘	<성찬식>					
수요 I부	은 빛	값비싼 향유를	E. P. Parker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J. B. Bach	최유현	김진형	서유진	

<헌금송>

I부	유초등부연합	이제 거듭나요	Ernie Rettino	박재원		권보화	
II부	그레이스랜드별	니팔소리 울려 주름 찬양해	Ruby Shaw	송재원			
III부	아멘관현악단	How great our joy	German Carol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임태종	16교구	이삭	인내팀	김창원	13-29	안드레	자비팀	신유경	3교구	청년1부	사랑팀
김교남	16교구	이삭	인내팀	장세진	13-29	루디아	자비팀	김민주	13-23	초등부	희락팀
최정재	14-14	리브가	인내팀	조상훈	14-13	발림	본인	김예은	13-29	초등부	자비팀
김미자	1교구	에스터	자비팀	전영주	12교구	청년1부	이주연	김예원	13-29	유년부	자비팀
김희자	14-6	빅빅	자비팀	박미진	14-13	도르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10.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합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11.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2. 의료 상담 / 이치동(정형외과) 만효영(내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결 혼

1. 최낙락 군(2교구 최정환 집사 윤금자 집사 장남)과 김나현 양(강규태 김재경 씨의 장녀) /
 7일(토)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875-0192)

행복자

행복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며 밝고 우렁차게 한다. 또한 인생을 따뜻하게 결합시키고 흐트란 만족감과 생기와 화기를 가져다 주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있는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미와 보람과 성취감을 맛볼 때 채워지기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영원히 값지고 보람있는 일은 진리되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지혜와 사랑과 보람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고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다.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